

2025 년 가을 학기
전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

전체 주제:
바울의 서신들 안에 있는 진리의 중점들 —
빌립보서와 골로새서

메시지 4
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한 것임을 인하여
모든 것을 해로운 것과 배설물로 여기고
그리스도를 얻음

성경: 빌 3:7-8, 계 3:12, 21

- I. “그럴 뿐만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또한 해로운 것으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” — 빌 3:8 상.
- A. 8 절부터 11 절까지는 하나의 긴 문장이다. 이것은 계단과 같이 우리를 점점 더 높이 이끌어 11 절에 있는 정점에 이르게 한다. “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뛰어난 부활에 이르고자 합니다.”
 - B. 바울은 그리스도 때문에 5 절과 6 절에서 열거했던 이전 종교에 속했던 것들을 해로운 것으로 여겼을 뿐 아니라, 다른 모든 것을 다 해로운 것으로 여겼다.
 - C.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탁월한 것은 그분의 인격이 탁월하기 때문이다.
 - 1. 유대인들은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인류 역사에서 가장 탁월한 것으로 여긴다.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에 대해 열성적이다.
 - 2. 바울도 이 율법에 열성적이었다.
 - 3.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리스도를 계시하셨을 때(갈 1:15-16), 바울은 탁월하시고 극도로 고귀하시고 지극히 보배로우시고 뛰어난 가치를 지니신 그리스도께서 탁월한 율법을 훨씬 능가하신다는 것을 보았다.
 - 4.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한 것이라고 여기게 되었다.
 - 5.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율법과 그 율법에 따라 세워진 종교뿐 아니라, 다른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겼다.
- II. “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,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.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,” — 빌 3:8 하.
- A. 바울은 ‘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’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.
 - 1. “으로 말미암아”로 번역될 수 있는 ‘때문에’라는 표현은 7 절과 8 절에서 세 번 사용되었는데,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두 번 사용되었고,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탁월한 것을 말하면서 한 번 사용되었다.
 - a. 그리스도는 율법, 율법에 대한 열성, 율법의 의와 대조된다.
 - b.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탁월한 것과 그리스도 자신은 모든 것과 율법에 대조된다.
 - c.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탁월하기 때문에, 바울은 율법과 율법에 대한 열성과 율법의 의와 다른 모든 것을 버렸다.
 - d. 이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탁월한 것과 그리스도 자신이 율법이나 다른 모든 것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것을 가리킨다.
 - 2. 배설물은 개들에게 던져주는 찌꺼기, 쓰레기, 오물을 가리킨다. 그러므로 이것은 개가 먹는 것, 곧 똥을 의미한다. 그러한 것들은 그리스도와 결코 비교될 수 없다.
 - 3.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다만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일 뿐 아니라, 바로 그분의 인격을 얻는 것이다.
 - a. 그리스도는 신격의 총만이 몸을 지니신 분이시며 (골 2:9), 모든 긍정적인 것들의 그림자의 실재이시다(골 2:16-17).

- b. 어떤 것을 얻으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.
 - c. 그리스도를 얻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여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모든 풍성(엡 3:8)을 체험하고 누리고 소유하는 것이다.
- B. “내가 그리스도를 얻고” — 빌 3:8 하.
1. 오늘 우리의 필요는 그리스도를 더 많이 얻고, 소유하고, 체험하고, 누리고, 표현하는 것이다.
 2. 우리는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한다.
 - a. 헬라어에 따르면, ‘얻다’라는 단어의 명사형은 빌립보서 3 장 7 절에 있고 동사형은 8 절에 있다.
 - b. 이러한 얻음은 계시로 말미암아 온다.
 - c. 우리는 너울이 벗어짐으로써 신약의 여러 책들, 곧 요한복음, 로마서, 골로새서, 히브리서,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아야 한다.
 - d.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만물 위에 계셔서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심을 보아야 한다 — 롬 9:5.
 - e. 그리스도를 보는 것은 단지 그분을 보는 것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, 그분을 얻기 위한 것이다.
 - f. 그리스도를 본 후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얻어야 한다.
 - (1) 우리는 본 것을 얻기 위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.
 - (2) 이것이 빌립보서 3 장 8 절에서 바울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한 것이라고 한 후 그 절의 끝에서 ‘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’라고 말하는 이유이다.
 3.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분투하며 추구하는 이기는 이들을 필요로 하시다 — 빌 3:8, 12.
 - a.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분투하며 그리스도를 추구한 이였다.
 - b. 우리를 포함하여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바울과 같은 이가 거의 없다.
 - c. 우리가 비록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, 판에 박힌 교회 생활과 일과 그리스도를 위한 봉사에 만족하는 가운데, 단지 어느 정도까지만 그리스도를 추구할 수도 있다.
 - d. 이와 같이 판에 박힌 것들을 따르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분투하도록 만들 수 없다.
 - e.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한 추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, 하나님은 이기는 이들, 곧 이기는 성도들을 필요로 하신다 — 계 3:12, 21.
 - f. 일세기 때로부터 주님은 이기는 이들을 부르셨고(계 2:7, 11, 17, 26-28, 3:5, 12, 21), 오늘도 여전히 이기는 이들을 부르고 계신다.
 - g. 심지어 독실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조차 이기는 이들, 곧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이들을 찾기가 어렵다.
 - h. 오늘날 이 땅에 수많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, 이기는 이들은 어디에 있는가?
 - i. 하나님은 이기는 이들을 부르고 계신다. 하지만 누가 그 부르심에 응답할 것인가?
 - j. 누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그리스도를 추구함으로써 그 부르심에 응답할 것인가?
 - k. 우리 가운데 많은 이들이 이기는 이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름에 반응함으로써 그리스도께 호의를 베풀기 바란다 — 계 21:7.